

2010 희망을 쓴다

③ '문학들' 일구는 고재중·송광룡 시인

# 지역 대표 종합문예지 문단 새바람 일으킬 것

올해 5·18 역사적 상처 문학과와의 관계 조명... 호남문화포럼 계획도

“최근 4년연속 우수문예지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 문예지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차별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한국문단에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그릴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창간해 2009년 겨울호까지 통권 18호가 나온 우리 지역 대표 종합문예지 '문학들'은 새해에도 지역문단의 활성화와 문화를 통한 다양한 토론 소통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

“창간 1년 만에 우수문예지로 선정돼 지금까지 호당 450만 원의 원고료를 지원받으니 큰 도움이 됐죠. 필자들이도 땀땀하게 쓸 수 있었어요.”

지난 5일 전남대 도서관 북카페에서 만난 '문학들' 발행인 송광룡 시인과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고재중 시인은 자랑부터 늘어 놓았다.

고 주간은 “우리 잡지에 대해 중앙 문단에서도 칭찬을 듣고 있다”며 이처럼 서울 사람들도 놀랄만한 문예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국 최고의 필진을 모신다’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자평한다.

“문학들”은 새해 해야 할 일이 많다. 2010년은 창간 5주년을 맞는 해이고, 5·18 30주년이라는 대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8과 지역문학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편집위원(김형중·임동학·채희운)과 구체적인 것은 논의 해야겠지만 봄호부터 모두 5·18을 중심에 두고 기획될 것 같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문학과와의 관계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유럽과 동아시아 문학도 소개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고 주간은 창간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역의 종합문예지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다.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지역성에 함몰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고 지향하는 얘기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고 주간이 찾은 대안은 전통문화와 현대의 접목. 문학에 중심을 두고 지역민의 정서, 사상, 사유의 뿌리를 찾아보고 발굴하는 기획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호남 지역 원로소설가들의 삶과 문학을 정리한 ‘소설가 열전’이나 지역문학의 근원을 탐구한 평론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문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예아카데미를 확대해 가정 ‘호남문화포럼’을 연다는 방침이다.

문예지 발간 외에도 시와 소설 등 단행본 출간도 계속할 예정이다. 송 시인은 “아홉 권까지 나온 문학들 시선은 올해도 이어 갈 것이며 현재도 세 권 정도의 시집과 단행본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 시인은 “지역 작가들에게도 언제든지 ‘문학들’의 문은 열려있다”며 “항상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로 삶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잡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쳐나가야 할 난관도 있다.

문예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큰 과제다. 다행히 우수문예지 선정으로 원고료 등 30%는 감당할 수 있으나 호당 2천여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충당하기엔 버겁다.

또 지역의 유망한 문인으로 구성



‘문학들’ 편집주간 고재중 시인(오른쪽)과 발행인 송광룡 시인이 지난 5일 전남대 도서관 북카페에서 만나 새해 ‘문학들’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된 편집동인을 현재 40명 보다 늘리는 것도 과제다. 재정적 후원은 물론 정례모임을 통해 잡지가 나올 때마다 엄정한 평가로 ‘문학들’의 질

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편집동인은 ‘문학들’의 중추이기 때문이다. 문의 062-651-696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인문·자연·문화 ‘지식여행’

광주서 12일부터 한달간 ‘자유예술캠프’

황지우·김홍준 교수 등 참여



〈황지우 시인〉 〈김홍준 교수〉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철학을 가로지르는 지식여행.’

국내 대표 학자들이 지난해 서울에서 진행했던 ‘자유예술캠프’가 올해는 광주에서 (사)시민문화회의와 ‘2010 겨울 자유예술캠프’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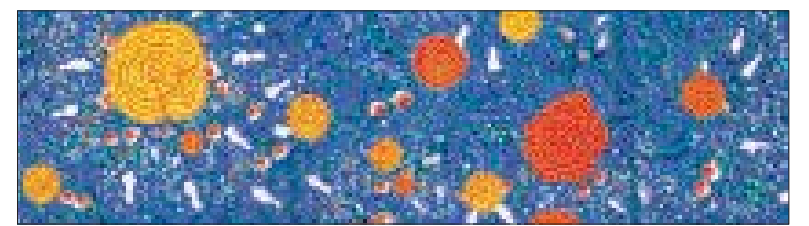
‘통섭’을 주제로 6개 테마 총 12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황지우 시인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오는 12일부터 약 한달간 일주일에 두차례( 평일·오후 7시~10시, 토요일·오후 3시~6시)씩 광주시청소년문화의 집 강의실에서 열린다.

오는 12~13일 황지우 시인이 ‘신화와 서사’를 테마로 강의하며 이어 노양진(전남대 철학과)교수는 ‘몸, 언어, 철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또 ‘창작을 위한 영화 보기’는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중인 김홍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진행하며 김재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20세기의 춤+문화예술+문명사’를 테마로 강의한다.

그밖에 이명원(문학평론가)씨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가 ‘문학과 비판적 인문주의’, ‘통섭, 창조성과 주체성의 새 엔진’을 주제로 강연한다. 수강료 8만원. 문의 062-372-33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인천강을 거닐다’

## 서양화가 김 종씨 수도권 나들이

과천·서울서 잇단 개인전

서양화가 김종씨가 경기도 과천시 민회관(8~15일)과 서울 자하 미술관(19~20일)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허공, 그 눈부신 상처림-월인천강을 거닐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태양과 싸우는 수탉, 달과 노니는 나비 등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물들였다.

이들 작품의 배경은 허공이며, 사물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 등 다양한 상상력을 오방색으로 표현했다.

화려한 색의 조합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사물들은 무한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달 걸어 둔 나무와 나무’는 나무 사이로 뜬 달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작품이며, 나무의 움직임이 작은 점으로 표현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수원점: 03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송파점: 1062-227-9970  
 혁신점: 061-851-2422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초슬림!!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문의: 011-609-9955

**장수바다장어**

100% 자연산

장수바다장어

문의: 062-372-3351